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음 9월 26일) 제19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1000리길 조성 박차

도, 도내 14개 시군 대표길 연말까지 선정  
15일 개최 환경부 생태관광 페스티벌 참여  
생태관광 홍보부스·체험행사 운영키로

전북도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중점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전북만의 생태·역사·문화가 숨쉬는 '전북 1000리길' (가칭)을 조성해 인문학적 힐링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북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전북 자존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길을 연말까지 선정할 뒤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이날 '순창 선비의 길' 체험에 나서며 "도민들도 직접 전북 산하의 명물길을 걸으면서 전북의 문화유산을 만끽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 선비길은 동국 18현중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허서 김인후 선생이 제자를 양성한 훈몽재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낙덕정, 대법원 가인 연수관을 연결하는 6km 구간으로 '15~17년에 조성된 길이다.  
전북도는 '전북 1000리길'의 홍보와 도민들의 걸기 붐 조성을 위해 소속 실·국·원별 직원들부터 체험행사를 갖게 하기로 했다.  
또 각 시·군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전북 1000리길'을 연말까지 선정할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도천년 기념 걷기행사 개최, 천리길 중심으로 길 디자인, 통합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민간단체 및 걷기동호회와 연계 걷기행사 개최,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정이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인과 이를 연계한 주

민 소득 증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생태관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4일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지역 생태관광지인 청암산 에코리온드 일원에서 3000여명의 도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생태관광 축제'를 열고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자고 다짐하는 생태관광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환경부 생태관광 페스티벌에 참여해 전북도 생태관광 홍보부스 및 다채로운 생태관광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홍보부스를 통해 전북도 생태관광지 12곳을 대표하는 홍보 리플릿, 생태관광지 주민들이 직접 그린 마을 안내지도, 자원조사 사진 등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며, 생태관광 에코백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상시 운영 체험프로그램 등 생태관광지역 갖대중 부채만들기 및 탁본 손수건 만들기, 생태팔찌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해 깊어가는 가을 전북도 생태관광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보리야 잘 자라라" 13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보리,밀 화분 재배 파종 체험 행사'에서 청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보리와 밀을 화분에 심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완벽하게 관리한다

도교육청, 종합상황실 가동 부  
정행위 방지대책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13일부터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시험장 설치와 교통대책 등 본격적인 수능관리체계에 돌입한다.  
16일 개최 예정인 2018학년도 대입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장을 책임자로 한 대입 종합상황실을 13일 오후 1시부터 7층 대입진학지원실 도지원실에 설치한다. 또 6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에도 상황실이 동시 설치된다.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등교를 위해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

인 이상 사업체의 아침 출근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요청하는 등 수능관리체계에 돌입한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은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소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통제 강화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대책도 추진된다.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계는 결계·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지참할 수 있다. 시침과 분침으로 작동하더라도 결계 기능이 있는 '교통신계'는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돼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서 안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거나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학생수가 적어 동일 학교 학생들이 같은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남녀 혼합 시험장을 구성하거나 수험생 배치순자를 줄이고,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도내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2만557명이 시험을 치른다. /정해은 기자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신임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취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11대 김태경 회장이 취임하고, 제10대 이광한 회장이 이임했다.  
전북도회는 13일 전주 호텔리온에서 내외 귀빈 및 전문건설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운 중앙회장, 김운덕 더불어민주당 前 국회의원,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경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정책적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축하사에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참여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공정한 하도



급 문화장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김장겸 MBC 사장 전격 해임

김장겸 MBC 사장이 13일 전격 해임됐다.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따르면, MBC는 오후 5시 30분께 주주총회를 열어 회의 15분만에 김 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의 70%는 방문진이, 30%는 정수장학회

가 가지고 있다.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 사장 최종 해임 결정은 앞서 방문진이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한지 1시간30분 만에 이뤄졌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MBC는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김 사장이 해임된 뒤 자신의 해임 요건 등을 문제 삼아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MBC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

국립전주대학교 전주캠퍼스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